

주민참여예산 반영 세부내역

(단위 : 천원)

부서명	사업명	예산반영액	신청인	비고
합 계		2,724,400		
일자리창출과	어려운 계층 가스타임 밸브 보급지원	10,000	운영○	
건설과	화목동 농로포장	150,000	천익○	
건설과	진영 내룡마을 진입로 정비	20,000	허정○	
건설과	진영 산북도로 일원 농로개설	45,000	박장○ 외 10명	
건설과	마을안길 정비(주민숙원사업)	550,000	안종○ 외 19명	
도로과	진영 여래 도시계획도로 사업(중1-5호선)	1,000,000	박승○, 장향○	
도로과	대동 신안~신정간 군도22호선 확장	800,000	김경○, 정필○	
경전철혁신과	버스 승강장 설치	127,500	박부○ 외 19명	
기술지원과	김해교 및 국도14호선 변 화분설치 등으로 경관 조성	9,900	김태○	
장유2동	주민센터 지하1층 다목적실 바닥교체	12,000	마춘○	
시민복지과	마을 어르신 쉼터	-	배혜○	
도시계획과	진영 스포츠센터 건립 및 폐선로 구간 외 보도(자전거도로) 연장	-	윤귀○	
공원녹지과	애견힐링공원	-	황명○	

2016년 예산편성을 위한 『주민참여예산 설문조사』 결과

□ 설문개요

- 설문기간 : 2015. 5. 20 ~ 8. 31
- 설문대상 : 김해시민(읍면동 리통장 및 자생단체·주민)
- 설문내용 : 7개 항목
 - 재정운용방향, 분야별 투자 방향(확대/축소), 지역경제 활성화, 사회복지, 생태, 문화교육, 교통
- 설문방법 : 서면 852명, 인터넷 157명
- 응답현황 : 1,009명(전년도 응답 - 915명)
 - 성 별 : 남자 498명(49.4%), 여자 511명(50.6%)
 - 연령별 : 30세 이하 79명(7.8%), 31~40세 184명(18.2%), 41~50세 286명(28.3%), 51~60세 301명(29.8%), 61세 이상 159명(15.8%)
 - 직업별 : 회사원 107명(10.6%), 자영업자 181명(17.9%), 학생 26명(2.6%), 주부 315명(31.2%), 공무원 117명(11.6%), 교사 8명(0.8%), 기타 255명(25.3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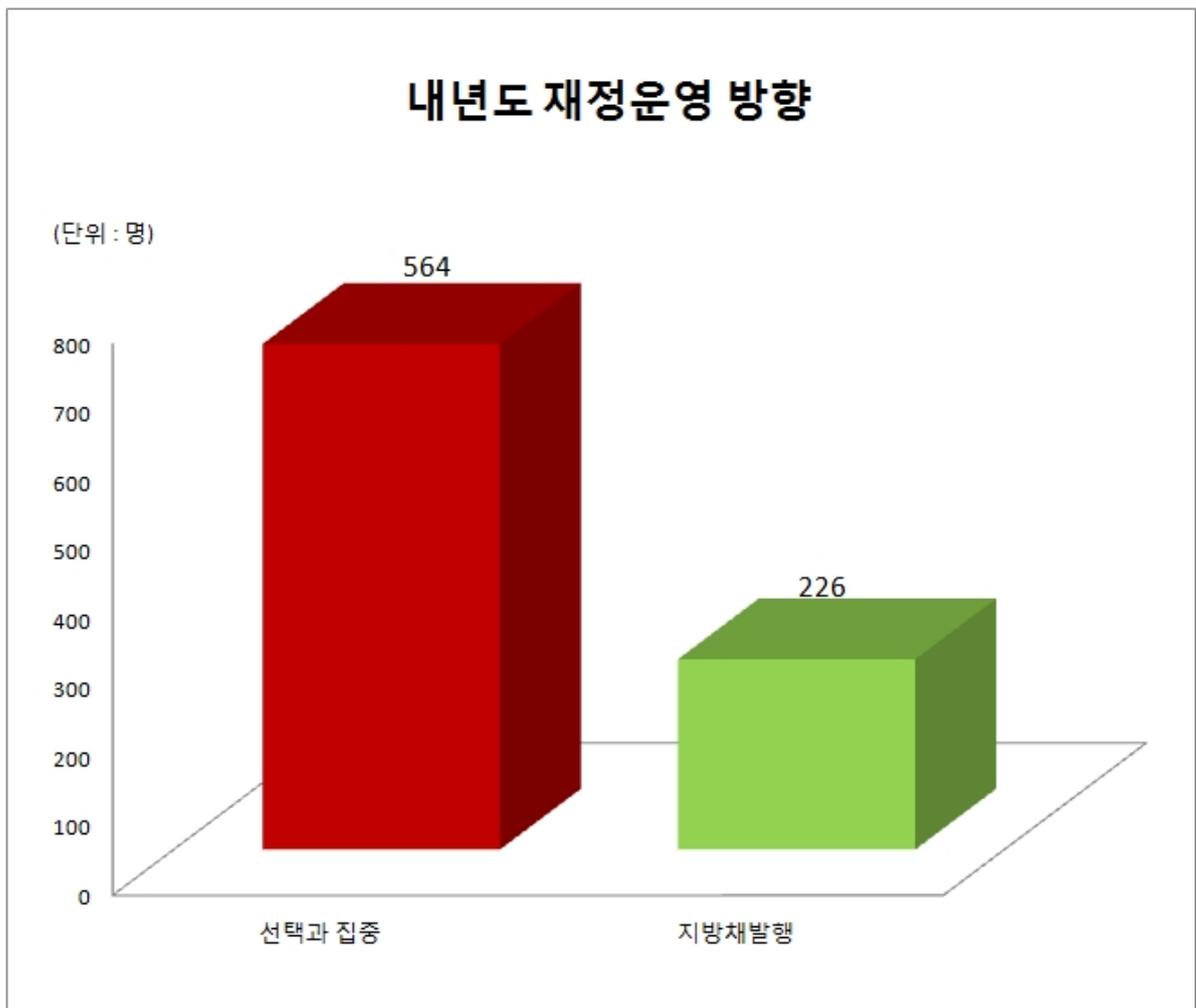
□ 설문조사 결과

○ 결과 분석

-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 했을 때 내년도 투자수요가 많아
재원이 부족할 경우의 대책에 대하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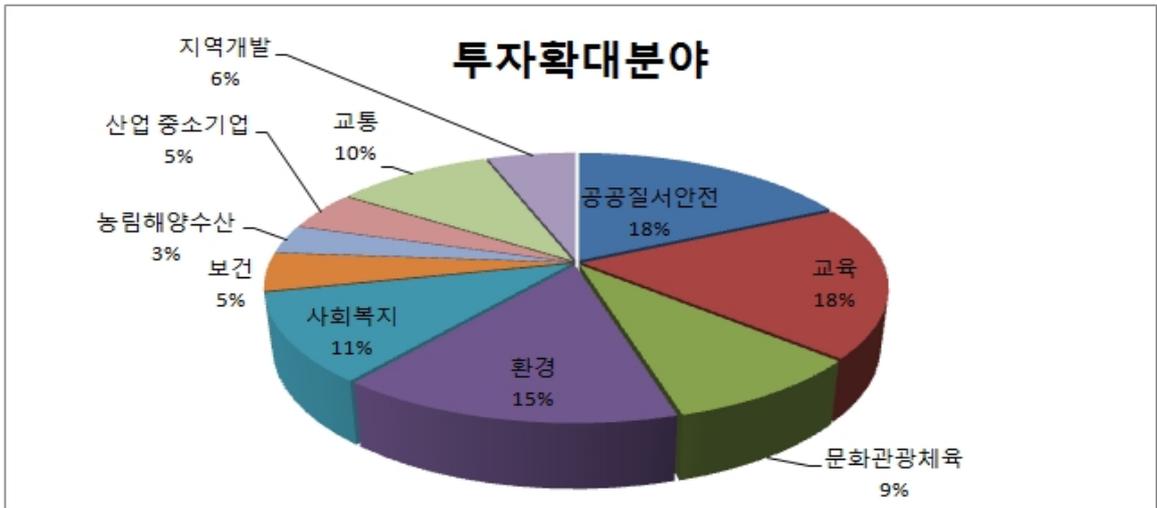
· “낮은 순위 사업 취소등 선택과 집중”에 72.6%, 733명으로 가장
많은 응답이 나왔으며,

· “지방채로 필요사업 우선 추진 후 분할상환”에 27.4% 276명 응답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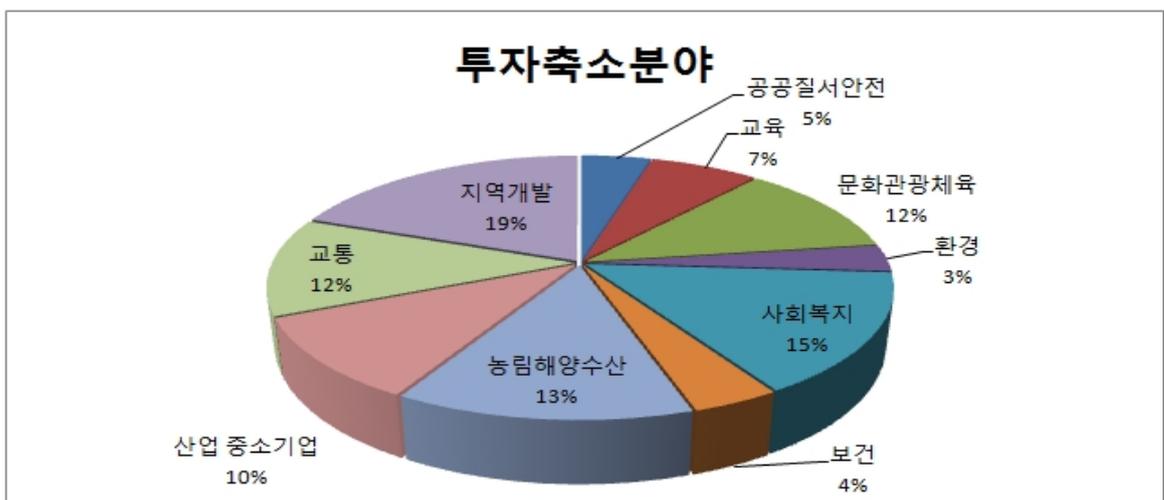
- 가장 중점을 두어 투자를 늘려야 할 분야에서는

- “교육”에 18.6% 371명으로 최근 경남도 무상급식 이슈에 따라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(전년도 2위),
- “공공질서및안전”이 세월호 사고 이후 지속적인 관심으로 17.9% 357명이 응답함(전년도 1위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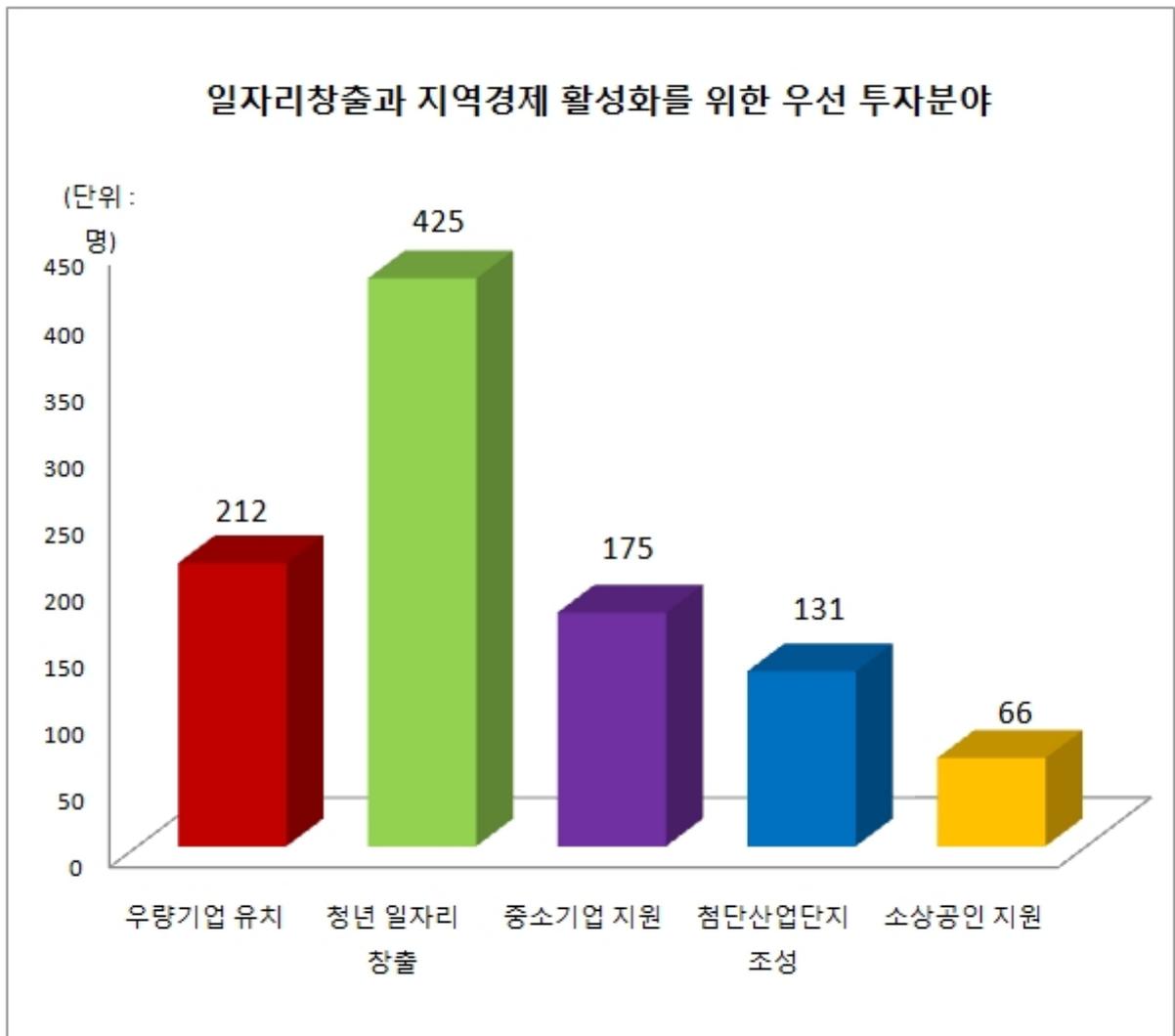
- 가장 투자를 줄여야 할 분야에서는

- “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”에 19.3% 386명으로 전년도에 이어 가장 많으며,
- “사회복지”에서 15.1% 302명의 응답률을 보였음
 - ※ 최근 ‘증세없는 복지’와 ‘서민증세’라는 이슈로 인하여 복지에산 축소 요구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(반면, 투자확대 응답에서 복지에산 확대(11%)가 4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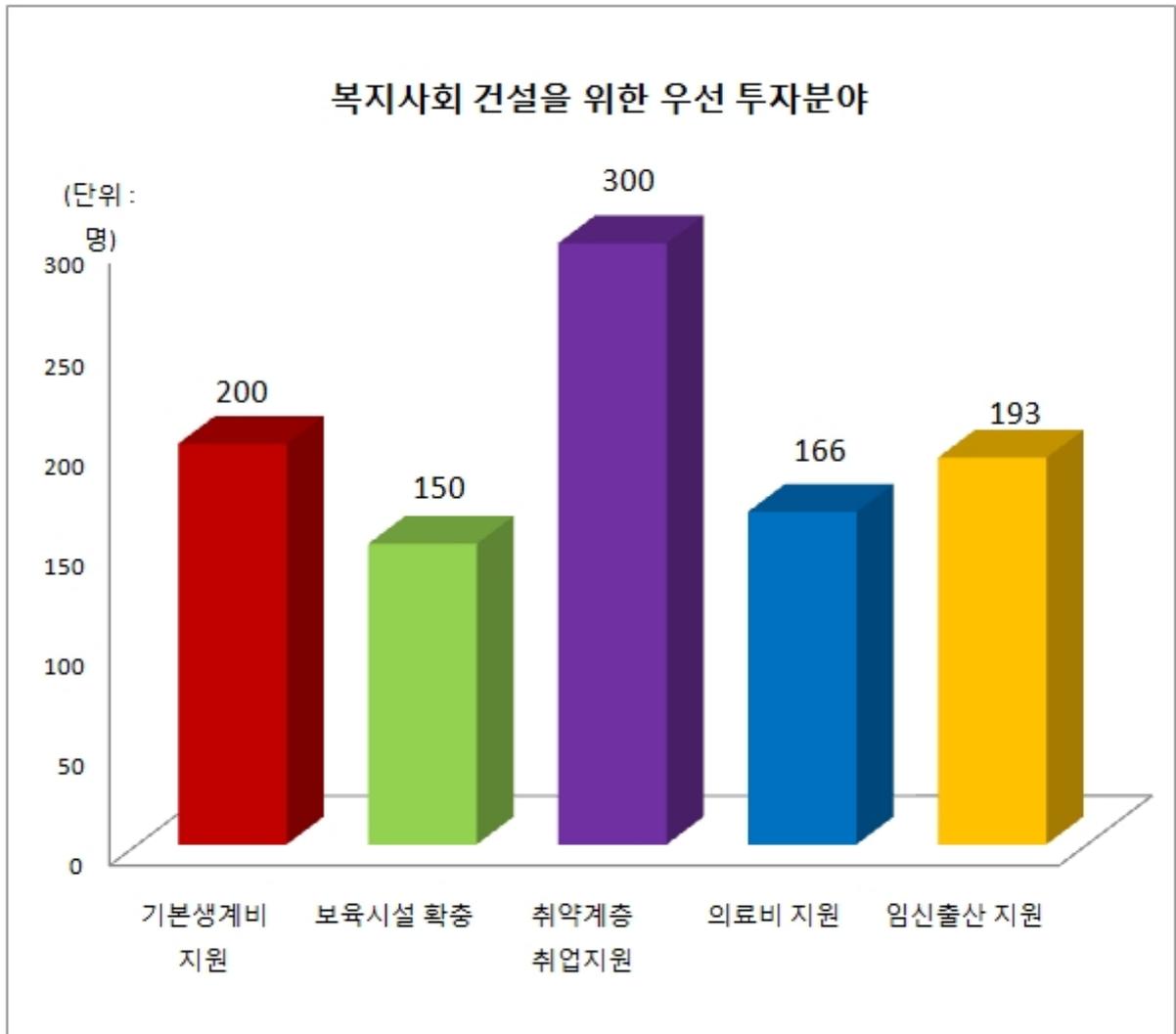


-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투자
해야 할 분야에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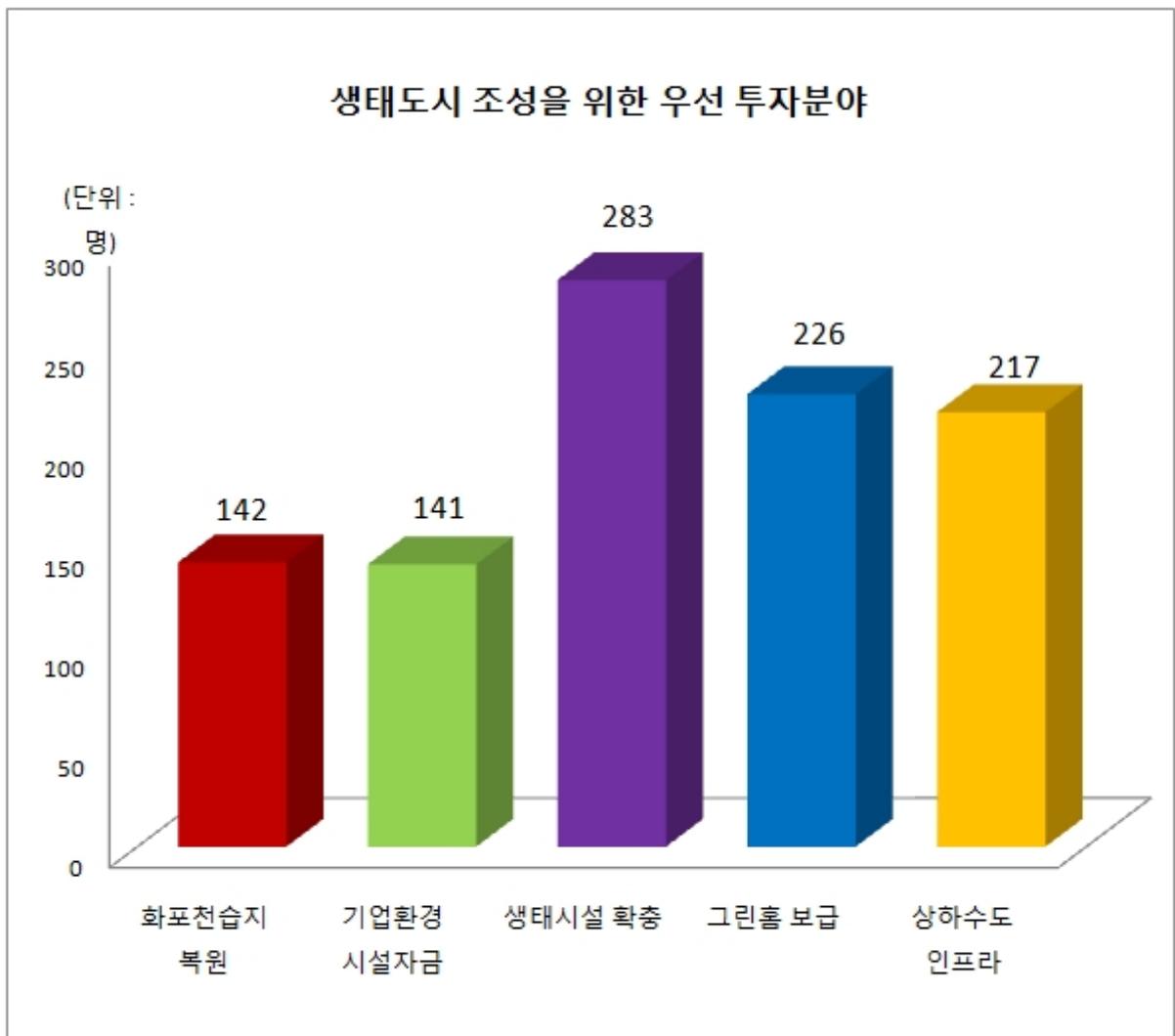
- “청년·취약계층 일자리 창출”에 42.1% 425명으로 가장 많은
응답률이 나왔으며,
- “글로벌 우량기업 투자유치”에 21.0% 212명,
- “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”에 17.3% 175명,
- “첨단산업단지 조성”에 13.0% 131명,
- “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확대, 전통시장 활성화”에 6.5% 66명의
순으로 응답률이 나타났음



- 복지사회 건설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분야에서는
 - “여성·노인·장애인 등 취약계층 취업 지원”에 29.7% 30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,
 - “저소득, 장애인 등 기본생계비 지원 확대”에 19.8% 200명,
 - “임신·출산·육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”에 19.1% 193명,
 - “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및 맞춤형 건강관리”에 16.5% 166명,
 - “영유아 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료 지원 확대”에 14.9% 150명, 등의 순으로 응답률이 나왔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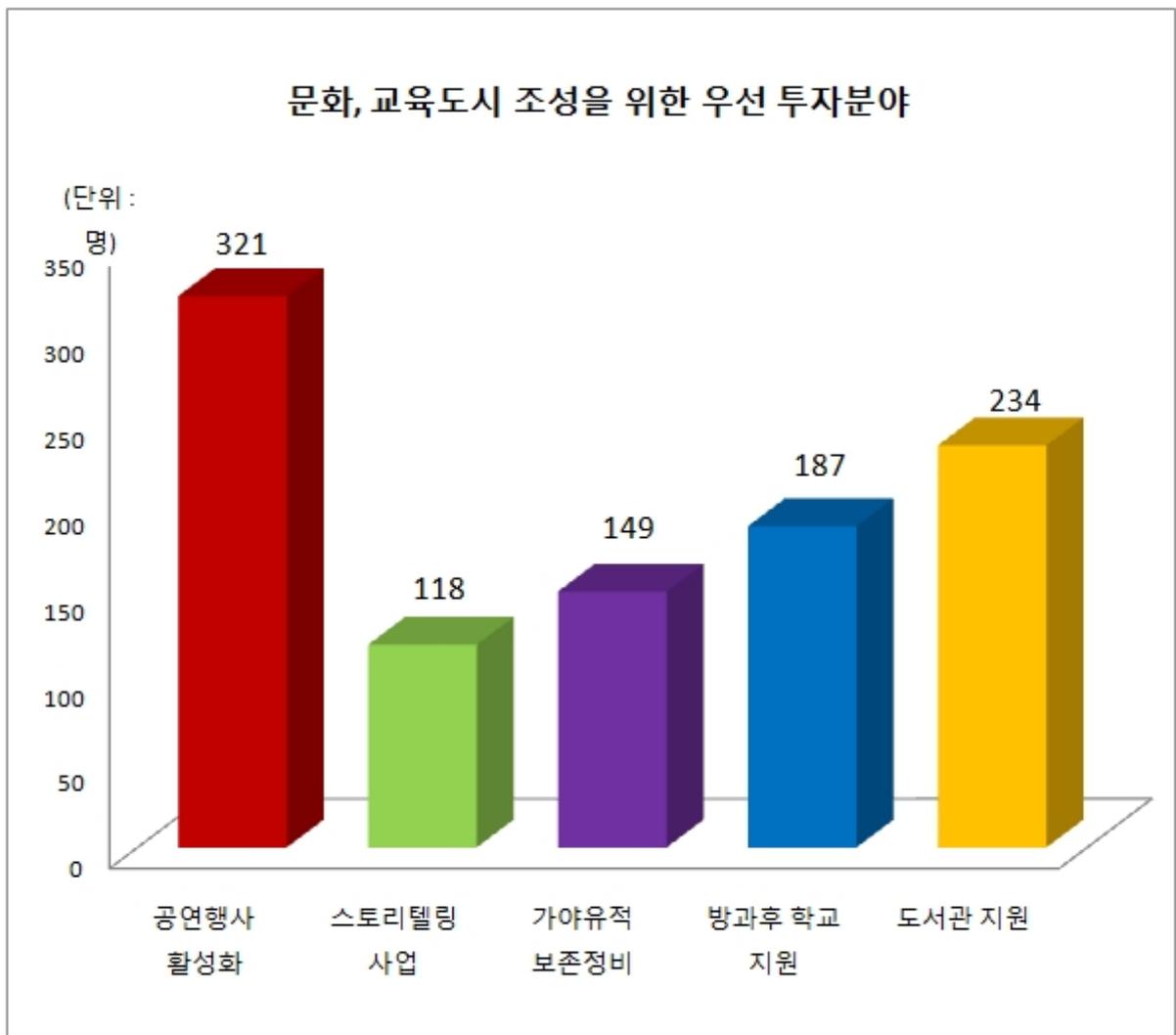


- 생태도시 조성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분야에서는
 - “생태하천, 공원, 체험관 등 시설 확충”에 28.0% 283명으로 가장 많은 응답률이 나왔으며,
 - “그린홈(태양열) 보급 및 그린스타트 운동 확대”에 22.4% 226명,
 - “상·하수도 인프라 확충”에 21.5% 217명,
 - “화포천습지 생태복원 및 관광자원 개발”에 14.1% 142명,
 - “기업환경시설 개선자금 이차지원 확대”에 14.0% 14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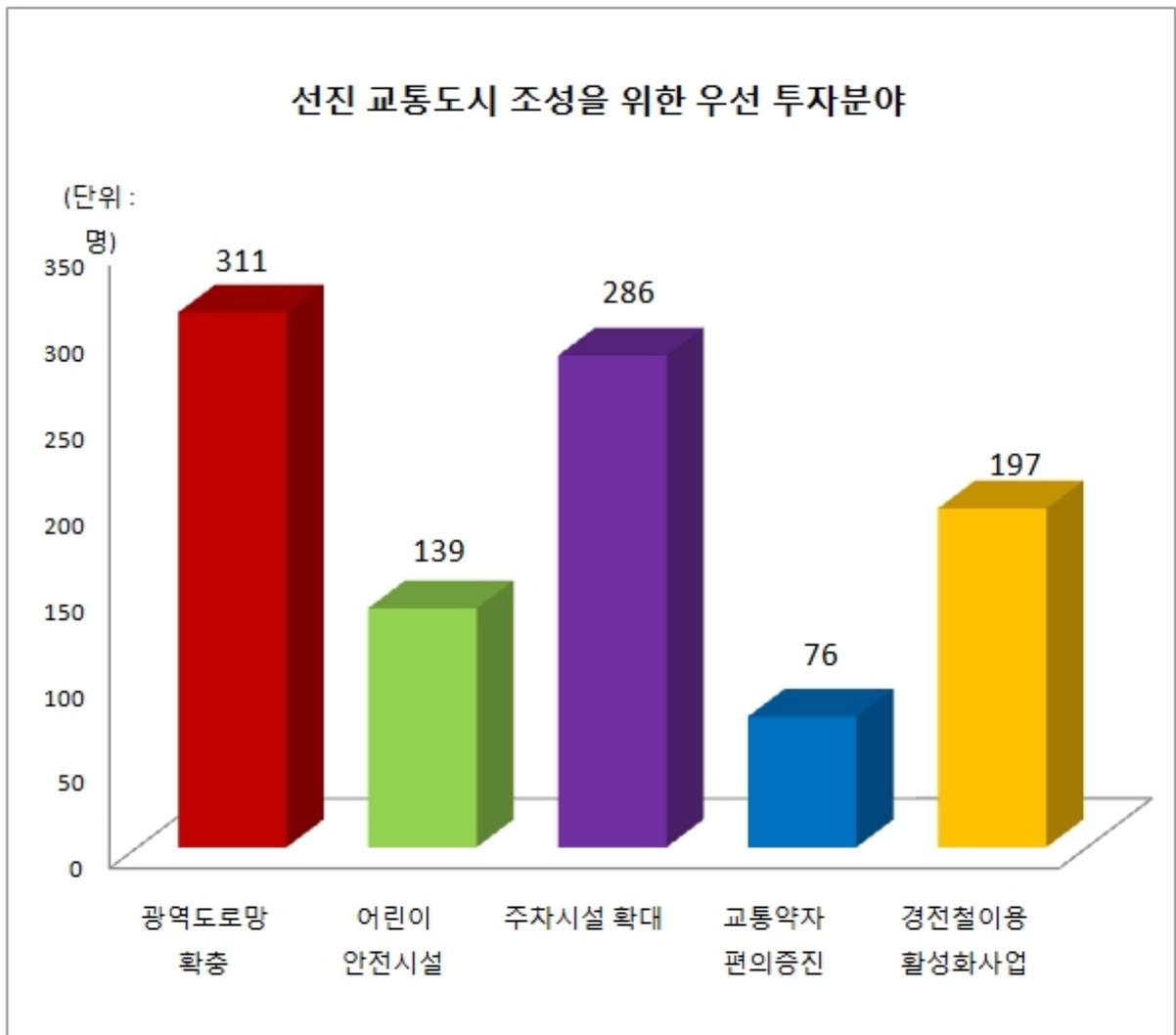
- 품격 높은 문화·교육도시 조성을 위해서는

- “문화예술 공연·행사 활성화로 문화수준 향상”에 31.8% 321명으로 가장 많은 응답률이 나왔으며,
- “시립도서관, 작은도서관,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”에 23.2%, 234명,
- “방과후 학교 지원 및 초등 영어체험교실 확대”에 18.5% 187명,
- “가야유적 보존·정비로 왕도 김해의 역사적 위상 정립”에 14.8% 149명,
- “스토리텔링 사업 추진”에 11.7% 118명으로 조사되었음.



- 선진 교통도시 조성을 위하여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되어야 하는 분야에 대하여는

- “주요도시를 연결하는 광역도로망 확충”에 30.8% 311명
- “공영주차장 등 주차시설 확대”에 28.3% 286명,
- “경전철 이용활성화를 위한 관광상품 개발”에 19.5% 197명,
- “안전한 통학여건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설치 확대”에 13.8% 139명,
- “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한 저상버스 및 장애인 콜택시 확대”에 7.5% 76명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음.



- 기타의견(189건) 집계

- 메르스 여파에 따른 경기 침체, 청년 실업률 증가로 산업·중소기업·에너지 분야에 74건의 기타의견 제출
- 사회복지 분야에 여성, 노인,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건의 등 43건의 의견이 있었으나, 사회복지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(2건)도 있음

